수용 (로마서 14:1-12)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수용이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다. 언약잡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은 중요하다. 올해를 주고 주신 첫 번째 말씀이 언약을 잡고 언약 안에서 기다리는 것이다.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언약에 집중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 인생 중에 계속해서 작품이 나올 것이다. 그 작품은 증거이다. 그것을 바탕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도전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흘려 완성하신 것이다. 당연히 우리가 이것을 물려줘야 한다. 이것이 인생의 답이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반드시 인생이 작품된다. 그래서 기다리고 집중하고 도전하는 이 세가지, 주의 부르심을 받을 그 때까지 해야 할 내용이다. 계속 반복하는 중에 예수님 오시는 그 날에도 우리가 할 것은 이것이다. 그 날도 우리는 그리스도, 세계 복음화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이 오실 그 때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를 말씀하신 것이다. 거기 26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고 하였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리스도가 어디 있다 해도 갈 이유 없다는 것이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방안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그리스도가 어디 있는가를 본자가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 믿는자가 구원 받는다. 그러니 어디에 있다고 말을 해도 갈 이유가 없다. 그 날도 우리는 언약 잡고 누리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얼마만큼 그 일을 해야 하는가? 그 날도 그 언약에 집중해서 작품 만들어야 한다. 그 날도 우리는 이 영원한 유산을 후대에게 물려줄 언약기도를 해야 한다. 그래서 이 영원하게 변하지 않을 말씀 붙잡고 언약성취를 위해 사는 것이다. 그러는 중에 이것을 위해 구체적으로 해야 할 교회에 주신 말씀도 있다. 그것이 남미를 위해 100팀 제자를 세우는 것이다. 100팀이면 200명을 말한다. 연중 이 분들을 남미 전체를 순회하고 복음 전하게 하는 것이다. 미국에도 100교회와 연결되어 이 복음운동을 함께 하자는 것이 기도제목이다. 남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표현한 단어가 남미 5천 종족 운동을 시작하는 해라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미국이든 남미든 우리가 증인되어야 할 내용은 언약과 전도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성경적 전도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한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설명한 전도를 전달할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우리안에서도 제자 중심으로 하는 시스템 전도가 계속 일어나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많은 기도제목들이 있을 것이다. 올해는 이런 부분에서도 많은 응답을 받기 바란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응답을 받아야 한다. 응답이 쌓이면 그것이 작품이 된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쌓이면 전부 응답이 된다. 올해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

1. 수용

오늘 1절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하였다. 때로 믿음이 부족해서 수준 이하의 소리를 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이때에 그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고 수용하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라는 것이다.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는다고 하였다. 먹는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다. 그런데 고린도전서에 보면 우상에 바쳐진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 그 때에 사도 바울의 말은 우상에 바쳐졌던 말든 그것은 하나님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믿음이 연약한 자는 그것을 먹음으로 영적 영향을 받을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영적 영향을 받지 않을 사람은 먹어도 괜챦을 것이다. 우상에 바쳐졌다 해서 귀신의 고기가 되는 것이 아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고기이다. 그러나 연약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영향을 받는다면 나는 영원히 안 먹겠다는 것이다. 이런 차원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하였다. 이유가 뭐냐면 먹든 안 먹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받았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받았다면 사람이 무슨 말이 많냐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았으면 끝났다는 것이다. 우리가 더 이상 말을 붙일 것이 없다. 조금 더 상세하게 4절에 설명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는 것이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종이다. 남의 종을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다. 주인이 있으니까.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 말할 것이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말한 것이다. 그가 넘어지든 서있든 모든 것이 그의 주인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를 이해하고 수용하고 기도하라는 것이다.

6절에는 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그 때에도 여전히 구약시대의 날 같은 것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다.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해 먹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8절에서 결론적으로 말하기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한 말을 이 말씀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그래서 9절에 그 말씀에 대한 정리를 그리스도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살아나셨으니 죽은자와 산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하였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를 중심으로 사람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기도하고 하라는 것이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기도하고 기다려야 한다. 특별히 믿음의 형제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다. 쉽지 않은 경우가 자주 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이 원리 원칙을 마음에 담아야 한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항상 갱신이다. 죽는 그 날까지 갱신이다. 늘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 새로운 생각으로 기도하고 언약이 되기를 바란다. 물론 아무것이나 다 수용하라는 뜻은 아니다. 틀린 것은 분명히 하지 않아야 한다. 때로는 사람은 수용하지만 그 내용은 분별할수 있어야 한다. 아무리 사람이 중요해도 사람 때문에 언약 버리고 다른 길로 간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다. 디모데후서 4:2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하였다.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하였다. 경책이 무엇인가? 때로는 책망할 일이 있다는 것이다. 경계라는 말은 때로는 선을 그어서 넘어오지 못하게 하고 여기까지다라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수용할수 있는데 틀린 것을 따라갈 수는 없는 것이다. 그 때는 엄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 목사에게 한 말씀이다. 이유가 뭐냐면 이것은 사단과의 영적 전쟁이기 때문이다. 계속 잘한다고 칭찬만 하되 그 사람이 사단에게 당하면 그것은 실패하는 것이다. 이유가 무엇이든 언약을 두고 다른 길로 갈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아무리 경책하고 경계하라고 해도 우리가 언약을 버리고 다른 길로 갈 수는 없지만 근본은 결국 사람을 수용하고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전도자는 특히 더 그렇다. 그리고 전부를 살려야 한다. 함께 가야 하고 전부를 다 살려야 한다. 그래야 세계 복음화가 되는 것이다. 마음에 드는 사람과만 친하고 해서는 세계 복음화는 안된다. 그룹은 만들 수 있다. 혼자서는 아무리 잘해도 세계를 살릴수 없다. 그리고 하나가 안되거나 함께 가지 않거나 하는 사람들은 갱신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영적문제라고 해서 뒤쳐질 필요도 없다. 우리가 결정을 하고 일어서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형제들 뿐 아니라 모든 상황이나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 말씀은 오늘 사람에 대해 이야기 했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모든 문제와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 것이다. 세상에는 우연이 없다. 일어난 모든 일, 사건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일단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 배척하고 비판하면 그 자세는 안된다는 것이다. 세상에는 절대 우연이 없고, 언약을 가진 자에게는 절대로 저주가 없다. 반드시 모든 운명 역전되는 것이다. 모든 문제는 축복으로 바뀌게 된다. 내 말이 아니다. 성경에 많은 결론중의 하나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되어지는데 조건은 한 개만 요구하셨다. 그것이 언약이다. 언약으로 살고 언약으로 도전하는 것이다. 그러면 일어난 모든 일이 축복으로 역전되는 것이다. 세상에서 머리가 좋은 사람도 문제를 뒤집어 축복으로 바꾸는 사람도 종종 있다. 답이 있기 때문이다. 그 사람은. 아주 생각이 굉장히 영역이 넓다. 세상에 70억 인구가 있기 때문에 70억 가지 방법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열린 사람은 문제가 일어나는 것 걱정 안한다. 항상 문제 일어나면 난리가 나는 사람은 생각이 좁은 사람이다. 신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리스도로 끝났다고 해버리면 확 넓어지게 된다. 그래도 그리스도 잡고 생각이 좁은 사람, 될지 않될지 걱정

하는 사람들, 그리스도 없는 사람도 생각이 넓어져 있는 사람은 걱정 안 한다. 무슨 수가 날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야 한다. 사람도 수용하고 이해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문제도 상황도 사건도 수용하고 이해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야 하고 축복이 숨어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래가지고 내가 먼저 치유받고 정복하고 승리해야 한다. 올해는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 남을 수용하면 내가 제일 먼저 이익이다. 사업을 하는 사람중에, 이런 마인드 있는 사람이 있다. 다른 사람을 수용하는 폭이 다른 사람보다 넓으면 성공한다. 결국은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지만 사람을 통하여 받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건을 통해서 받고 문제를 통해서 받는 것이다. 문제도 없는데 기적이 있겠는가? 기적을 주기 위해서 문제를 주셨을수도 있다. 그런데 무조건 축복으로 바꿀수 있다는 것이 언약인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흘리신 것은 조건 필요 없다. 무조건이다. 누가 하나님이 십자가에 피흘려 돌아가셨느데 조건을 대겠는가? 그것이 들어와 언약되면 그 사람 인생이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일어난 문제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그것을 주님께로 가져가면 그 사람이 먼저 이익을 보는 것이다. 사람을 수용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먼저 이익을 본다.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먼저 수용하고 하나님께 가져가는 사람이 이익을 보는 것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셨다. 그 다음 말씀이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는 것이다. 조건이 없는 것이다.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문제를 가지고 내게 오라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막힌 문이 열릴수도 있다. 사람을 수용하고 문제를 수용하고 언약으로 살면 막힌 문들이 열릴수도 있다. 생각지도 못한 응답이 올 수도 있다. 응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받기는 사람을 통해 받기 때문이다. 사람을 수용하지 않고 매일 비판하고 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응답의 문이 막히는 것이다. 사역자들은 평소에 늘 마음에 담아야 할 삶의 방식이다. 한번 수용하고 이해하고 권면했는데, 이것이 전체 사역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제자 한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문이 열리기 때문이다. 나의 남미 사역도 시작은 한 사람이었다. 이제는 남미 전체를 바라보고 있다. 10년 걸렸다. 앞으로 어떻게 될것인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될 것이다. 사역자 뿐 아니다. 응답을 받고 증인되기 원하는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삶의 방식이다. 인생 작품을 만들고 언약이 성취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전부 이렇게 살아야 한다. 로마서는 1-11장은 전부 언약에 대해 말하고 있다.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러므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하고 있다. 그 첫 번째 단어가 거룩한 산 제물이었다. 영적인 것으로부터 나의 인생 자체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하튼 우리가 사람을 수용하고 문제를 수용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물론 근본은 언약이다. 그러나 이해하고 수용하고 섬기는 자세는 우리 현장에서 언약을 더욱 언약되게 할 것이다.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마음에 안 드는 경우도 많고.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런 중요한 실질적인 것들이 언약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인생 작품을 정말로 만드는 한해가 되기를 바란다.

2. 작품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잡고 사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작품 인생이 나오게 되어 있다. 참 간단하고 쉽고 감사하다. 크든 작든 하나님의 계획이고 여하튼 작품이 나오게 되어 있다. 이것은 위로하는 말이 아니다. 작아도 작품이다라는 식으로 위로하는 것이 아니다. 잘 안되지만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잡고 살려고 발버둥치는 사람에게 반드시 응답 오게 되어 있다. 그리고 그 응답이 지속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진짜 응답이다. 하나님이 계속 다음 단계의 응답을 주실 그런 응답이 되어야 한다. 쉽다. 그리스도를 누리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작품은 우리가 이룬 것을 다른사람이 인정할만한 것이 되어야 작품이라는 말을 쓸 것이다. 내 인생 누구나 그렇게 되기 원하는데 언약 잡고 살면 그렇게 된다고 성경은 말한다. 요셉은 작품인생을 살았다. 그는 꿈을 받기 전에 야곱으로부터 수많은 메시지를 들었다. 그래서 어린 베냐민은 일하러 보냈고 요셉은 집에 곁에 두었다. 영적인 축복이라면 둘째라가면 서러워 온갖 일을 다 꾸민 것이 야곱이다. 쓸데 없는 일까지 한 사람이 야곱이다. 그런 야곱이 요셉을 집에 남겨놓고 무엇을 했겠는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자기까지 내려온 그 이야기를 계속 말했을 것이다. 이 분들의 축복은 자기들의 역사가 성경인 것이다. 야곱은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내려온 모든 역사가 자기 인생이고 성경인 것이다. 모세도 마찬가지였다.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젖먹으면서 계속 창세기부터 들었다. 아이가 뭐를 이해했겠나? 하든지 말든지 생명걸고 말했다. 요게벳이 진짜 기도 많이 했을 것이다. 이 아이는 어리지만 말씀 들어가야 한다고 계속 기도했을 것이다. 그 이후 모세는 왕궁에 살았기 때문에 성경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전무했다. 그런데 모세가 나중에 크고 살인사건 때문에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 거기서 결혼도 하게 되었다. 그런데 미디안에서 창세기를 썻다고 학자들이 해석을 한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모세의 인생이 얼마나 작품이 되었는가? 그와 같은 인생을 산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작품인생의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계속 말씀을 듣는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공하고 승리한다. 왜그런가?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시기 때문이다. 한번 믿고 끝내서는 작품은 안된다. 구원은 받는다. 계속 들어야 한다. 생각하면서 듣고, 적으면서 듣고, 기록한 것 되새기면서 듣는 것이다. 그러면 그 안에 들어오는 말씀이 있다. 그 말씀을 자기도 모르게 잡게 되어 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게 되어 있다.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라. 일주일에 메시지를 몇 개씩 듣는가? 이것은 중요하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영적으로 하신다. 우리는 육신적인 생각에서 나와야 한다. 우리가 들은 메시지가 마음에 살아 있다면 그 사람은 대단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그것이 잘 안된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신다.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계속 듣고 적어야 한다. 차 안에서 들을수도 있다. 듣고 난 후에 없어지더라도 그만큼만은 이익이다. 어느날 말씀을 듣는데 한 마디 들어온다면 그것이 평생 언약이다. 하나님은 말씀을 먼저 주시고 그대로 하신다. 그래서 성경이 없다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우왕좌왕 난리난다. 이 책 한 권이 이 세상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 책 한 권이 없으면 사단이 난리를 칠 것이다. 엉망진창이 되어 버릴 것이다. 세상에 한 사람이라도 구원 받을 사람이 있으면 그 세상을 지키신다. 성경말씀에 의하면 소돔 고모라는 죄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다. 의인 열명이 없어서 망한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각이다. 죄 때문에 망한다. 그러나 왜 조건이 의인 10명이었는가? 의인이 있어야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이다. 원인은 결국 죄이다. 그런데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그것이 언약이다. 그래서 언약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죄 중심으로 살게 되면 반드시 걸려 넘어지게 된다. 하나님은 살리는 것 중심이다. 언약 중심이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 생각이 그렇게 바뀌어야 한다. 여하튼 우리의 모든 삶이 작품 인생 되려면 말씀 들어와야 한다. 이것이 우리를 살린다. 분명한 것은 언약되신 그리스도를 잡고 살아야 한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해야 할 것 하나는 받은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면 약속이 성취는 작품이 나오는 것이다. 위하여 말씀을 받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 중요하다. 이것이 진짜 되는 사람들이 있다. 여전히 어려움이 있어도 여전히 응답을 받는다. 이것이 인생이다.

2024년을 두고 우리는 귀중한 말씀도 받았다. 마음에 담아야 한다. 그것을 언약으로 잡아야 한다. 그래서 올해는 내가 언약을 잡고 기다리겠다. 하나님, 올해는 제가 언약을 잡고 기다리겠습니다. 역사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그 언약 안으로 올해는 집중하겠습니다. 내게 작품을 주세요. 그 작품을 주시면 그것을 바탕으로 내가 도전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내게 후손에게 물려줄 영원한 유산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올해 우리가 잡을 기도제목이다. 그것과 함께 우리는 100팀을 하고 100교회를 해야 한다. 남미에는 오천종족 운동 시작이다. 위하여 우리에게 성경적 전도 일어나게 하옵소서. 올해 우리가 받은 말씀이고 기도이다. 그래서 위하여 사람 뿐 아니라 모든 상황과 문제를 수용해야 한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저 사람도 하나님의 계획이다. 문제도 하나님의 계획이다. 언약 잡고 기다려야 한다. 그 언약에 집중해야 한다. 결국은 작품 나올 것이다. 그것으로 항상 도전하는 인생 살면서 놀라운 비밀을 후대에게 물려주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란다. 이것을 할수 있는 근본적인 단어, 수용이다. 인정하고 받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라, 이 놀라운 축복이 넘치기를 바란다.